

근대한문학의 진정성 試論

김진균*

<目次>

- | | |
|-----------------------|----------------|
| I. 머리말 | III. 진정성의 추구 |
| II. 한문지식인의 소외와 연대의 정서 | IV. 진정성의 실현 구도 |
| | V. 맺음말 |

<국문 초록>

근대한문학은 근대계몽기 이래 근대 문명의 중심권에서 소외된 자리에서 전개되었다. 소외된 한문학을 추구하는 지식인으로서 한문지식인들은 일정한 범주 안에서 서로 골육과 같은 표현을 쓰며 강력한 연대 의식을 갖게 되었다. 근대한문학의 중심을 이루는 정인보와 변영만도 일정한 연대 의식 속에서 근대한문학의 가치를 발견하여 소멸의 길을 되돌리려고 노력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진정성의 가치를 발견한다. 진정성은 공동체의 삶에 대한 공감에서 출발하여 다시 공동체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였다. 진정성을 표현하는 형식은 소외되고 소멸되어가는 한문학이었다. 한문지식인 자신의 변화와 강고한 연대감을 갖는 한문지식인 사회에 우선 변화의 임무를 부여하였던바, 근대 계몽담론이 요구하는 동원되는 국민과 같은 단계가 설정되는 대신에 전통 한문 지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했다.

【주제어】 변영만, 정인보, 근대한문학, 진정성

*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교수 / bujiwibuji@hanmail.net

I. 머리말

근대로 진입하는 시기부터 전통 학문, 특히 儒學을 타자화하여 “漢學”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고전 학문의 보편적 지위에서 중국으로부터 유래하는 외래의 특수한 지위 정도로 위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학이 근대에 유입된 제반 학문들의 틈에 끼어들어 여러 개별 학문 중의 하나로서 적당한 대접을 받게 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폐기해야 할 부정적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근대계몽기 계몽담론의 중심에서는 구학문과 신학문을 구별하여, 구학문을 청산하고 신학문을 추구하자는 것이 주류적 경향이었다. 이 구학문이 바로 유학 혹은 한학이다. 구학문에 종사하며 수구적 태도를 보이는 한학자들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니, 그들의 두뇌를 도끼로 찍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이 등장할 정도로 계몽담론은 한학을 적대시하고 있었다.¹⁾

이에 대해 중세 동아시아 보편주의의 가치를 여전히 인정하며 포기할 수 없는 인사들의 분노도 만만치 않았다. 黃玹은 “방정맞은 자들이 한문은 응당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형세가 막혀서 제지되었다.”²⁾고 하여 한문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을 방정맞은 자라고 하였던 것이다. 많이 알려진 『梅泉野錄』 갑오년(1894) 12월의 한 대목이다. 갑오경장의 칙령 가운데 있는 “국문을 본으로 삼고 한역을 부하여 혹 국한문을 혼용함”이라는 조목의 힘이 서서히 과급되어 국한문체가 공문서의 기본 문

-
- 1) 김진균, 「한학과 한국한문학의 사이, 근대한문학」, 『국제어문』 51, 국제어문학회, 2011, pp.140-145. 참고. 특히 수구적 한학자의 두뇌를 도끼로 찍어내야 한다는 주장은 李沂의 「一斧劈破」(『湖南學報』 1호(1908.6.), pp.12-18.)에서 전개된 것이다.
 - 2) 黃玹 저·임형택 외 옮김, 『譯註 梅泉野錄』 상, 문학과지성사, 2005, p.424. 원문은 “(及甲午後, 趨時務者, 盛推諺文曰國文, 別眞書以外之曰漢文. 於是, 國漢文三字, 遂成方言, 而眞諺之稱泯焉.) 其狂佻者, 倡漢文當廢之論, 然勢格而止.”

체로 자리 잡는 과정을 목도하고 기록한 내용이다. 이 어름부터 중세 문명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던 문자행위는 漢이라는 외래성을 표시하는 기호와 결부되어 고유명사로서의 漢文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것이다. 얼마 전까지 眞書라고 불리며 절대적 가치를 갖는 문자로 대접받던 것이 순식간에 외국 것으로 전락하여 상대화된 사실을 묘사하는 대목을 기록하기까지는 참고 있던 황현의 불쾌감이, 심지어 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맞닥뜨리는 대목에서 폭발하여 그런 무리들을 “방정맞은 자”라고 지목하고 있다.³⁾ 이러한 분노에도 불구하고 한학과 한문은 결국 근대의 중심에서 소외되었다. 형세에 막혀 위축된 것은 오히려 한문이었다.

그러나 한학을 기본으로 성장하여 한문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려는 지식인들이 일거에 소멸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식민지시기에 들어 근대 매체에 명망가들의 한시가 실리기도 하였고 현상모집으로 한시를 권장하는 경우도 있어서 한시의 경우 근대 문화계의 한복판에서 제법 오래 생존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한시 창작층은 식민지시기에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⁴⁾ 한문 문장의 경우는 한시에 비해 근대 매체에 수용되는 일이 적었지만, 꾸준히 창작 유통되고 있었다. 1910년 이후 서거한 인물의 문집만 해도 2000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짐작된다.⁵⁾ 방대한 저변을 확보하고 있었으면서도 근대의 중심에서 소외되고 또 소멸의 길을 걷고 있던 근대한문학은, 나름의 존재 의의를

3) 김진균, 앞의 논문, 같은 곳.

4) 이희목, 「근대계몽기 한시 소고」, 『인문과학』 45,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이 논문에서 제시한근대매체에 게재된 한시의 총량은 19,000여 수로 그 방대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또한 근대계몽기를 전후하여 서당 교육이 평민층에게까지 확산되고 이러한 경향이 식민지시기에도 지속되어 한문 해독층이 대량 증가하였음을 추정하였다.

5) 경인문화사의 <韓國歷代文集叢書>가 web서비스 되고 있는데(<http://www.mkstudy.com>), 전체 3000여 종의 문집 중에 1910년 이후 서거한 인물의 문집이 1800여 종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발견하고 소멸의 길을 되돌리려 애쓰기도 하였다. 卞榮晩(1889-1954)과 鄭寅普(1893-1950)는 근대한문학의 쌍벽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데,⁶⁾ 근대한문학 안에서 전개되었던 존재 의의 재발견의 노력을 鄭寅普·卞榮晩 등이 주고받은 편지글을 중심으로 확인해보려 한다.

II. 한문지식인의 소외와 연대의 정서

정인보가 변영만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다.

홀로 생각건대, 문자는 몸과 서로 의지하여 이것을 나고 자라면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해도 호응이 없고 불러도 화답이 없어 뜻이 울울하여 자득함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형이 있어 함께 좋아해주시니 이는 골육과 다름이 없었습니다.⁷⁾

여기서의 문자는 한문이며, 문자가 몸과 서로 의지하여 있다는 것은 자신과 한문을 분리할 수 없는 상태임을 표현한 것이다. 태어나 성장하면서 한문을 익히고 그것의 생리를 체득하여, 거의 그림자와 몸이 서로 의지하고 있듯이 도저히 분리하여 사고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을 고백하고 있다. 한문이 지식인의 유일한 문자였던 중세였다면 한문에 대한 이런 집착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한문의 단일한 문자 행위가 지속되는 한에서는 한문이 선택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선택적 대상이 아니기에 문자 행위로서 한문에 집착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한문 내부의 문체적 선택 대상이라고 할 秦漢古文이나 唐宋古文 혹은

6) 이우성, 「발간사」(변영만 저·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 역주, 『변영만전집』 상,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p.5.

7) 정인보, 「與卞蕓篁榮晩書」(이가원 편, 『한문신강』, 신구문화사, 1972.), p.292, “獨念, 文字, 與形軀相依, 此生長不可捨棄, 而言而無應, 唱而無和, 意鬱鬱不自得, 而幸有兄與之同好, 此如骨肉無異.” 이 편지는 『담원문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그간 거론되지 않던 것이다.

今文 등에 대해 각자의 이념적 선택에 의한 집착은 당연히 있었는데, 한문 자체에 집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한문의 외부에 국한문체와 근대적 국문체가 등장하여 문자 행위에 선택지가 열리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자신의 선택적 대상에 대한 집착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게다가 근대계몽기를 관통하면서 철저한 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했었고 식민지시기에 들어서면서 근대 문명의 중심권에서 소외되어 가던 시점에서, 한문을 포기하지 못하는 입장을 강하게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인보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 수준 높은 한문 문장으로 교류할 대상이 희박해지는 것에 절망하고 우울해진 것이다. 수준 높은 한문 문장으로 교류할 거의 유일한 대상에 대해 골육 이상의 애착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인다. 변영만은 屋社라는 시회의 동인들과 박연 폭포를 노닐고 와서 記를 지었는데, 불참했던 동인들을 거론하면서 특히 정인보가 함께 못 가서 글을 함께 짓지 못하였음을 대단히 애석해 하였다.⁸⁾ 변영만도 정인보와의 문자 교유에 각별한 의미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드문 음악 아는 사람 적어,
아름다운 글 짓고 나면 산 풍경만 바라보는 것.
내 정처 없는 생각을 한번 풀어내면
그대 오래도록 생각에 남을 것을 알겠네.⁹⁾

정인보가 부여의 문장가 李玄圭(1882-1949)¹⁰⁾와 주고받은 화답시의 일부이다. 이 부분의 정서 또한 교류할 대상을 찾은 기쁨과 쇠락의 분위기

8) 변영만, 『변영만전집』 상, 『遊崧陽記』, p.202. 원문은 “未與此行者, 洪君碧初李君一星·鄭君爲堂, 尤恨爲堂之不得助余爲文也.”

9) 정인보, 『담원 정인보 전집』 5, 『次韻李玄山玄圭寄示七古』, p.311, “獨恨希音知者少, 佳文書罷對山色. 以我懸懸思一吐, 知君依依長見憶.”

10) 玄山 李玄圭의 생애와 고문 문장에 대한 견해를 당대 인사들과 주고 받은 정황에 대해서는 박우훈, 「현산 이현규의 생애와 교유」, 『인문학연구』 30권 2호,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3.에 정리되어 있다.

에 대한 감정이 착잡하게 얽혀 있다. 한문은 이제 희소한 음악이 되었다. 희소한 음악이라도 가치를 인정하고 수준을 알아주는 향유자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 음악을 알아주는知音도 따라서 적어진 것이다. 정인보와 이현규처럼 감정을 토로하는 매체로 한문을 사용한다면 기껏 아름다운 글을 다 짓고 나서도 독자를 찾을 수 없어, 창작의 희열 대신 경치만 바라보는 허전한 시선을 인용문의 둘째 줄에 표현한 것이다. 셋째 넷째 줄에서 정인보가 심경을 쏟아낸 글을 지어 보내면 이현규는 두근두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생각에도 떠나보내지 못하고 감상하게 될 것이라고 짐작하였으니, 허전한 풍경을 바라보는 대신 서로에게 지음이 되는 애뜻한 정이 표현된 것이다. 정인보가 변영만에게 표현하였듯이, 이현규도 정인보를 골육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¹¹⁾ 소외되어가는 한문 문장을 추구하여 일정한 성취를 이루고 있는 이들은 서로 골육과 같은 연대의 감정으로 묶이게 되는 것이다.

道를 권면함이 쇠하고 流俗은 예쁜 것만 서로 잇기를 좋아한 지가 오래입니다. 저 또한 세속에 멀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古文 한 가지 일은 그만두지 않아서 근근이 실낱같은데 나라 안을 보아야 동호자는 역시 적막합니다. 그대 같은 사람은 재주가 높아 남보다 백십배는 뛰어나니 진실로 우리 도가 덕분에 빛날 것을 깊이 기대합니다.¹²⁾

정인보의 조금 후배가 되는 金文鈺(1901-1960)¹³⁾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이 편지에서는 골육 같은 표현은 없고 문장 태도에 대한 다른 견해

11) 이현규, 『玄山集』, 「答金嘍然」, p.78, “鄭景施每日就我, 相與如骨肉.”(경인문화사 <역대문집총간>, <http://www.mkstudy.com>)

12) 정인보, 『담원정인보전집』 6, 「答金文鈺書」, p.443, “偲道衰, 流俗喜相繩美, 久矣. 普亦不敢自遠於俗, 徒以古文一事不絕, 僅如線環, 視域中同好亦寥寥. 若座下才高出人百十倍, 眞吾道所賴以光輝, 望之深矣.”

13) 曉堂 金文鈺에 관해서는 박금규, 「효당 김문옥의 생애와 시」, 『한문교육연구』 11, 한국한문교육학회, 1997.; 정길수, 「일제강점기 전통 지식인의 고뇌」, 『인문학연구』 40,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2010. 참조.

가 있어 정인보가 責善하는 듯한 대목이 있지만,¹⁴⁾ 문명의 중심에서 소외되어 쇠락해가는 한문학을 함께 한다는 同好로서의 연대의 정서가 표명되어 있다. 한편 위 인용문에서는 문자행위와 우리 도[吾道]를 일치시키는 인식을 선명히 드러내는데, 정인보에게 한문과 유교는 기본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정인보는 한문이라는 문자행위를 나눌 동호자가 적어지고 유교라는 이념이 쇠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한문동호자 중에서 뛰어난 자질을 보이는 자들과 연결되면 그 힘으로 유교가 다시 부흥되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문옥 역시 “이처럼 인문이 어둡게 막힌 시대에 다행히 선생님이 활동하시니, 하늘의 뜻은 참으로 그 학문을 성취케 하여 끊어진 울림을 다시 일으키려는 것이라, 우연한 것이 아니라 여겼습니다.”¹⁵⁾라고 하여, 정인보에게 동지적 유대감을 표현하였다.

즐거운 일이 저에게서 떠난 것이 이미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에게 힘입어 다시 큰 단서를 잡았습니다. 가령 이로부터 쉬지 않고 明辨과 博學의 영역에 마음을 다하고, 오래 영원할 수 있는 학업에 뜻을 두게 된다면 비록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또한 어찌 만에 하나 그 도에 얻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필경 얻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한 허물을 적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감히 선생께서 동의해주실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진실로 적 스스로 선생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知己로 생각하고 있습니다.¹⁶⁾

-
- 14) 김문옥이 정인보의 글을 대거 교열하여 정인보가 불쾌해 하였으며, 이로 인해 한동안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다고 한다.(박금규, 앞의 논문, p.257.) 이러한 감정이 서로에게 남아 있어, 정인보가 김문옥의 글에 대해 굳이 단점을 지적하며 좀더 분발하라는 말을 덧붙인 것으로 짐작된다.
- 15) 김문옥, 『曉堂文集』, 「答鄭景施」, p.309, “以爲當此文晦塞之日, 幸而有執事作焉, 天意固欲使成就其學以倡絕響, 非偶然而已.”(경인문화사 <역대문집총간>, <http://www.mkstudy.com>)
- 16) 변영만, 『변영만전집』 상, 「遊崧陽記」, p.280. 원문은 “樂事之去榮晚也, 已非一日. 今賴先生, 而復攬其大端焉. 借循是也無衰, 得究心明博之域, 措意久壽之業, 雖茲無狀, 亦豈無萬一得於其道哉? 其竟無也, 則亦可以寡過矣. 是以, 雖不敢知先生之察不察, 而榮晚, 則固竊自以先生爲有生初遇之知己.”

변영만이 영남의 深齋 曹兢燮(1873-1933)에게 보낸 편지이다. 애초에 변영만은 1909년에 작성했던 「如是觀」과 1910년에 작성했던 「人性論」을 조공섭에게 보내면서 교유를 청했다. 이 두 작품의 참신한 사유와 뛰어난 문장 수준에 감복하여 대단히 성찬하면서도, 桐城派적 지향을 가졌던 조공섭은 사상적 지향에 일정한 우려를 표명하는 편지를 보냈던 바 있다. 성리학적 세계관과 당송고문적 문체의 결합이라는 동성파적 지향을 갖던 조공섭으로서, 근대적 세계관을 한문 문장으로 성취하려는 변영만의 입장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였던 것이다.¹⁷⁾ 이에 대한 변영만의 답장 중에서 나오는 표현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樂事, 즐거운 일이란 한문으로 문장을 짓고 성취를 얻는 일을 말한다. 이 편지를 보낸 시점이 1923년인데, 변영만은 1910년 중국으로 망명하는 무렵부터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이 대목까지 한동안 거의 한문을 창작하지 않고 있었다. 이 시점을 전후하여 변영만이 영남의 인사들과 교유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문 문장에 전심을 기울여 창작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변영만으로서 다시 樂事를 찾게 된 것인데, 이것이 조공섭의 답변을 계기로 가능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의 수준을 인정하고 소통할 만한 대상을 만나지 못했다면 변영만은 다시 樂事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한문을 久壽之業, 오래 가고 영원할 수 있는 학업이라 규정하고 다시 추구하게 된 것이다. 이런 계기를 만들어준 조공섭을 변영만은 知己로까지 표현한 것이다. 조공섭은 변영만에게 더욱 道를 추구하며 정진하여 韓愈를 뛰어넘는 성현을 기약하라고 당부하였다.¹⁸⁾

17) 이에 대해서는 김진균, 「변영만의 문장관과 문예의식」, 『민족문학사연구』 23, 민족문학사연구소, 2003. 참조.

18) 조공섭, 「序」, 변영만, 『산강재문초』 상, p.33, “韓氏者, 其有志於明道而未至者乎! 君之才, 於屈馬之所至, 至之已若無難者, 使有志而加勉矣, 或可進於韓氏之所未至焉者, 則前所稱六經之文, 是已. 余尙安得以豪傑域君, 而不望之以聖賢之事也哉!”

시대의 변화한 분위기가 한문학을 소외시켜가고 있던 상황에서, 변영만과 정인보는 한문학으로 소통할 대상을 찾고 서로에 대한 연대감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었다. 한문학이 단지 문체적 선택지 중의 하나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체득하여 그림자처럼 자신과 강하게 연계된 표현 도구였기 때문이다. 또 한편 한문학은 단지 그들에게 최선의 표현 도구이기에 한 것이 아니라, 도를 추구하고 도를 실현하며 오래 영원할 수 있는 학업으로서의 의미까지 결합된 것이었다. 이렇게 중대한 의미가 부여된 한문학이 근대 문명의 중심에서 소외되어 가는 분위기에서, 높은 수준에서 한문학의 내부 토론이 가능한 대상은 서로에게 骨肉이며 知己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Ⅲ. 진정성의 추구

소외되어 가는 한문학과 한문지식인들의 연대의 정서 속이라고 하더라도, 한문학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입장에서 서로의 견해 차이를 간과할 수는 없다. 정인보가 변영만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문장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리가 엿보인다.

형은 지어낸 말이 너무 호탕하여 진정성에 늘 근거하지는 않는 것을 저속이 보았기에, 형의 큰 재주와 뛰어난 식견에 병통이 되는 것은 오직 이것이라 여겼습니다. 언젠가 형을 마주하고, “문장은 오직 한결같이 진정하고 꾸밈이 없어야 하는데, 형이 지은 것은 진정성이 없거나 혹 좀 어긋난 것이 아닌가요.”라고 말했었습니다. 형은 그때 웃으며 답을 안했는데, 저는 또 형이 비록 속으로는 내 말을 옳다 여기고 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갑자기 수긍하지 않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형을 진정성이 적다고 한 것은, 훌륭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요즘 보통 사람들 같으면 형의 전날의 반만 되어도 오히려 순박하다 하겠습니까. 형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남들보다 많기에 더욱 그 진정성을 키우기를 바라서,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없는 것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병통으로 여기게 되며 그냥 방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¹⁹⁾

정인보는 변영만의 진정성에 의심을 품고 있었다. 변영만이 재주도 뛰어나고 식견도 커서 기대는 바가 많은데, 다만 문장이 너무 호탕하여 진정성이 부족한 것을 병통으로 여겼다고 한 것이다. 정인보는 여기서 문장이 지켜야 할 유일한 가치를 진정성에 두었다. 그 유일한 가치에 대한 차이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성이 전혀 없다면 개선의 여지도 없는 것이니, 진정성이 일정하게 있어야 그것을 배양하여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변영만이 진정성이 남보다 더욱 뛰어나니 더욱 배양하여 최선의 경지로 완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풍부하기에, 정인보는 그 가능성을 걸고 선배인 변영만에게 감히 충고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런데 정인보가 변영만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계기는 지어낸 말이 너무 호탕하다는 것이다. 변영만 문장의 호탕함에 대해서는 조공섭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대개 엄숙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꼭 꾸며 말하고, 간략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꼭 구구절절 말하고, 평담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꼭 신들린 듯 맛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하께서 서양 문학에 오랫동안 마음을 두신 까닭에 자신도 모르게 그것에 동화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논의하신 뜻도 더욱 常情舊說과 다릅니다.²⁰⁾

정인보가 호탕함이라고 한번 언급하고 만 것에 대해 조공섭이 주석을

-
- 19) 정인보, 「與卞薊篁榮晚書」, 같은 곳, “竊觀兄發辭多宕, 不恒依眞, 謂兄長才偉識, 所病者獨此耳. 嘗對兄言, ‘文章, 惟一眞而無假, 子所爲, 無乃或少違歟.’ 兄時笑而不應, 弟又謂, 兄雖心然吾言, 當外示哂笑, 不遽頷也. 然弟以兄爲少眞, 亦責賢者備之義. 假如時俗人, 則得兄向日之半, 猶爲淳之, 在兄, 則惟其眞之過於人也, 故又欲其加眞, 而少見不眞, 乃竊竊然病之而不置也.”
- 20) 조공섭, 『巖棲集』(『한국문집총간』 350), 「答卞穀明」, p.189, “蓋可以莊言者, 而必詭言之; 可以約言者, 而必叨叨言之; 可以平淡言者, 而必神乎味乎以言之. 意者, 足下留心西文之久, 不覺其與之化乎? 至其所論之指, 尤有與常情舊說異者.”

다는 것처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엄숙하고 간략하고 평담하게 표현할 수 있는 대목을 이것저것 꾸미고, 구구절절 말하고, 신나고 맛깔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문장의 표현 수법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공섭이 표현한 이런 문체적 특징을 정인보는 호탕함이라 표현하였다. 조공섭은 변영만의 낯선 표현 수법을 서양 문학의 영향으로 보았는데, 변영만 자신이 서양 문학과 동양 문학을 아우르는 회통의 지점을 자신의 입지점으로 세웠기에,²¹⁾ 크게 어긋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동양과 서양을 대비하여 서양을 무시하는 입장에 서 있던 조공섭에게는 그 회통의 지점이 서양에 투항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서양의 대비로 등장하는 것이 常情舊說이라 하겠는데 엄숙·간략·평담의 가치가 있는 것이며, 변영만의 호탕함에 결여되어 있는 가치이다. 이에 반해 정인보는 변영만의 호탕함이 놓치고 있는 지점을 진정성이라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변영만이 진정성을 진정으로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진실로 그것이 진정성이라면 비록 여항의 정이 얽힌 쇠쇄한 것이라도 좋은 것이요, 진실로 그것이 허위라면 비록 덕과 교화의 장중함이라도 나쁜 것입니다. …… 만약 구차하게 사건을 서술하고서 반드시 맺음말에서 “노력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 하고, 상황을 서술하고서 반드시 맺음말에서 “아아, 괴롭도다!”라고 한다면 비루한 것입니다.²²⁾

권장할 만한 사건을 기록하거나 부정적인 상황을 서술하거나 글의 끝에 가서는 꼭 평가의 사족을 달아놓아야 문장이 金玉이 된다는 견해를 金鍊(1890-1944)가 고집하고 있었던 듯하다. 김수는 먼우 곽종석의 문인

21) 임형택, 「변영만의 글쓰기 형식과 문학 사상」, 『대동문화연구』 55,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p.180.

22) 변영만, 『변영만전집』 상, 「再答金士文書」, p.32. 원문은 “苟其眞也, 雖巷情之藜瑣, 良也. 苟其僞也, 雖德教之莊重, 惡也. …… 若屑屑然記一事而必終之曰: ‘可不勉哉’; 敍一物而必結之曰: ‘嗚呼痛矣’, 則陋矣.”

으로 동성파적 문학 이론을 갖고 있었던 듯하다. 변영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문장이 도를 신는 수레라는 논리로 변영만을 공략하였는데, 위 인용문은 이에 대한 변영만의 답장이다. 변영만은 문장이 꼭 도덕적 이념의 그릇이 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도덕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예술의 척도로 문장을 보려 한 것이다. 그것을 ‘진정성[眞]’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인생의 참된 감정이기에 여향의 쇠쇄한 정도 진이 될 수 있는 반면, 도덕교화라도 인생현장과 괴리된 것이라면 ‘허위[僞]’가 되는 것이다. 문장으로 모든 참된 것을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문장으로 완성의 가치를 지니는 것인데, 도덕적 이념이 앞서서 도덕적 표현으로 평가를 덧붙여야 문장이 완성된다고 여기는 태도에 대해 ‘비루하다[陋]’고 힐난하고 있다.

앞서 인용했던 정인보의 편지 부분에서 변영만에게 힐난과 존경이 착종된 이유는 여기에 있는 듯하다. 내용상의 진정성과 표현상의 호탕함을 드러내는 변영만의 글에 대해 정인보는 표현상의 호탕함을 주로 문제 삼으며 내용상의 진정성이 표현으로도 관철되기를 기대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정인보는 문장의 수련에 관해 程朱의 글을 더 읽어 간결하고 심원한 경지를 배워보라거나,²³⁾ 고문을 배운답시고 장구만 천착하는 수준을 넘어서라거나²⁴⁾ 하는 등 상대의 수준과 상태에 따라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고 있다. 문장 형식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본 조공섭이나 김수와 비슷한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에 비해 변영만은 당송고문을 넘어서는 문장을 추구하려는 노선을 취하였기²⁵⁾에 형식상의 문제에서는

23) 정인보, 『담원문록』 하, 「윤여런 기증에게 보내는 편지」, pp.400-401.

24) 정인보, 『담원문록』 하, 「윤사건 석오에게 답하다(3)」, p.398.

25) 변영만, 「答成純永一汝書 其三」 “且夫取法於漢以上, 其弊自有難免於墜爲唐宋矣, 則取法於唐宋, 亦安能以適成唐宋乎哉. 取法於唐宋, 其弊自有難免於跌爲桐城矣, 則取法於桐城, 亦安能以適成桐城乎哉. 故即欲學桐城, 亦必學唐宋, 即欲學唐宋, 亦必學漢以上. 比如射的然, 固未有矢與的平而能中的者. 矢之向的也, 必稍舉揚焉, 然後殺而乃始有中者也.”; 「答河性在敬初書」, “周秦初漢之文, 概能爲近於是. 故爲可宗. 及後葉之爲之也, 多不能以心爲文, 乃以文爲文.

이견이 커지는 것이다.

그런데 내용상의 진정성에 대해서 정인보와 변영만은 크게 다른 가치를 추구했던 것 같지는 않다. 정인보는 黃玆의 동생 黃瑗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장의 일이란 오직 진정성을 기약할 뿐”²⁶⁾이라 하기도 하고, 문장 수련을 묻는 후배에게 답변으로 “意를 위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때로 저잣거리에도 다녀보고, 간혹 학교에도 가보고, 협객소년과도 사귀고, 외국에 나가 물정의 변화도 보아, 그대의 몸이 한세상 사람이 되어 내달리는 것과 슬픈 노래와 통곡과 뛰고 구르며 장단에 맞춰 춤추는 것과 감개와 억울함을 더불어 함께 한다면, 기가 치솟고 의가 장대해질 것입니다. 의가 장대해진다면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²⁷⁾

정인보가 朴勝燾에게 보낸 편지인데, 문장을 잘 하기 위해서 우선 意를 위주로 하라는 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요컨대 집안에만 있지 말고 세상 물정을 겪어보라는 말인데, 세상 물정을 겪는 것을 관찰자로서 하기보다는 한세상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함께 내달리고 함께 곡하고 함께 춤추고 함께 세상과 같은 감정을 느껴보라는 것이다. 세상과 함께 한 뒤에 장대해지는 의, 그것을 위주로 문장을 해 나가야 한다고 지침을 내리고 있다.

변영만도 세상과 함께하는 가치의 진정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아시아인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고 하여 성인처럼 떠받들고 있던

故作僞日拙，胥入於敝。韓氏謂能振之矣，而時亦蔑以自振焉，況振人乎。而蘇軾輕淺，竟許爲起八代之衰，僕不欲遽信其爲說也。由此而風斯益下，序記狀誌之屬爲體日繁，而無喜之唱不悲之嘆，日益雜廁於文字之中，而文遂浸以淪喪焉。” 등.

26) 정인보, 『담원정인보전집』 5, 「復黃石田文書」, p.79, “文章之事, 惟期於眞”

27) 정인보, 『담원정인보전집』 5, 「與朴勝燾書」, p.42, “莫若蕩滌華辭之好, 刮絕繩渠, 一以意爲主. …… 時往來闐闐, 間游庠塾, 交狹小, 出城外觀勢物之變, 以身爲一世之人, 而與俱馳驟, 哀歌痛哭, 踞躍曲踊, 感慨悞憶, 則氣激盪而意爲之壯意, 意壯則無不發也.”

타고르에 대해, 산강은 아무리 읽어도 유익함을 얻지 못했다고 하였다. 동족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타고르옹은 참으로 시원하게 바람을 타고 다니며 발에 먼지를 묻히지 않는 자라 할 것이다. 눈으로는 점령자 영국의 채찍질 아래 신음하는 동포들을 보면서도 좋은 벼슬자리에 얽매여서 읍조림을 그만두지 않고 있다. 혼탁한 시대에 이름을 날리며 사방의 나라를 관광하면서 유유히 하늘을 날아다니며 명예가 온 세상에 미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있다. 이 어떤 사람인가? 진정성이 없는 사람일지니 무엇을 더 논하겠는가!²⁸⁾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래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가고 있던 타고르에 대해 산강은 진정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타고르가 산강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휩박받는 동족을 제쳐두고 압제자인 영국의 벼슬을 받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명예나 구하는, 진실성이 부족한 인간인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진정성이란 바로 자신의 삶을 포함하여 동족의 삶까지도 깊이 있게 느낀 대목에서 획득되는 것이다. 땅에 발을 딛고 서서 한 세상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는 진정성은, 세상 사람들의 감개와 억울함을 더불어 함께 하여 얻어지는 정인보의 의 진정성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귀족 출신의 타고르가 동족의 고통을 모르고 아름다운 시만 지어내는 것과, 부유층의 자제로 세상 물정에 어두운 박승도가 옛 글을 모방하는 것만으로 문장 수련을 하는 것에 대한 변영만과 정인보의 대안은 세상과 함께 하며 세상 사람들의 감정을 더불어 느끼는 것이었다.

소외되어 가는 한문학과 한문지식인들의 연대의 정서 속이라고 하더라도, 한문학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입장에서 서로의 견해 차이를 간과

28) 변영만, 『변영만전집』 상, 『題陋古婁集後』, p.152. 원문은 “而冷然御風而行, 不塵其足者矣, 信僊僊然者矣. 而眼視同胞之呻呼於英寇極楚之下, 而好爵自糜, 不廢吟咏, 策名濁季, 覽光四國, 騰舉翱翔, 延譽八裔, 而恬無所用耻焉. 彼何人哉? 其無誠也.”

할 수는 없다. 정인보는 변영만의 진정성을 문제삼으며 공약을 취한 바 있었는데, 문장 형식의 진정성에 대한 견해 차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眞 혹은 誠으로 표현된 진정성의 내용적 가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공히 세상을 외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견해의 일치된 태도를 갖고 있었다.

IV. 진정성의 실현 구도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정인보와 변영만이 자신들의 진정성에 대한 입장으로 세상과 함께 한다면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될 터인데, 이미 근대계몽기 이래 소외되어가는 한문학을 통해 자신들의 사상과 감성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던 것이다. 진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세상과 함께 하던 태도가 진정성을 표현하는 과정에서는 세상과 달리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진정성의 최종 목표는 결국 다시 세상을 향하고 있다.

불가에 큰 스님들이 무리지어 나오는 것이 유가의 적막함에 비할 수 없습니다. 일찍이 그 까닭을 생각해봤습니다. 禮儀 三百과 威儀 三千으로 바깥은 꾸미는 것은 갖추어져 있는데, 바깥을 꾸미는 것이 비록 그 안을 기르는 것이긴 하지만 안이 길러지지 않더라도 바깥은 그대로 엄연할 수 있어서 적폐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內心에 꾸밈이 없습니다. 명료하게 항상 아는 것이기에 의지하여 홀로 관조한 경지에서는 아무것도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고로 능히 거짓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방 하나 사람 한 몸이 비록 작고 미약하지만, 한뼘에서 시작하여 천하를 기를지게 하는 것이 誠이니, 우리들이 노력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²⁹⁾

29) 정인보, 「與卞薊篁榮晚書」, p.293, “釋氏門, 龍象輩出, 不比孔家落寞, 嘗竊思其故, 禮儀三百威儀三千, 所以飾於外者, 備矣, 飾外, 雖所以養其中, 而中或失養, 徒外猶足以儼然, 積弊至於今日. 而彼內心無飾, 而了了常知者, 專靠此獨照處, 一切皆無足存, 故能不容於假, 而從以不絕也. 吾輩爲學, 可以知所處矣.

변영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정인보는 근대 이후 불교의 성공과 유교의 쇠퇴함을 대비하여 유교의 입장에서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그 차이를 정인보는 “禮儀 三百과 威儀 三千”의 형식 추구의 단점을 유교가 지닌 데 비하여, 불교는 형식을 버리고 속 마음 한 가지를 중심에 세운 장점이 있기에 발생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형식 추구라는 것은 내면을 키우기 위한 對症의 처방은 되어도 근본의 처방은 아닌데, 그 부작용이 누적되어 유교 쇠퇴의 폐단을 불러왔다고 보았다. 여기서 정인보는 유교가 형식 추구의 단점을 지녔기에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 추구 단점을 수술하고 유교를 부활시켜야 하지 않겠냐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입장에서 內心을 근본 원리에서부터 주목하던 불교의 융성이 포착되어 변영만에게 언급한 것이다. 실제 이 시기 불교가 내심의 홀로 관조한 경지 때문에 융성해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인보에게 있어서 內心の 진정성은 근본 원리이며 자기 시대의 사명으로도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조선유교 전통은 거기에서 멀어져버렸으며 불교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으니 불교가 유교에 비해 융성해보이는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그것을 다시 誠으로 표현하였다. 방한칸, 내 한몸, 살 한뼀에서 출발한 誠이 천하를 기쁨지게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지도계급을 자처하는 중세적 지식인의 전통을 잇는 양심적 고뇌의 흔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중세적 지식인의 전통을 잇는 일에 함께 노력하자고 하는 것이며, 앞서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 대목도 결국 이 부분에서 진정성을 공유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⁰⁾

今日之意，莫急於灑濯人心，苟非然者，馨香不聞，上帝終不福汝。一室之中，一人之身，雖小且微哉，起自膚寸，膏澤天下者，誠也，吾輩可不勉乎。”

30) 이 편지에 대한 변영만의 답장으로 추정되는 편지가 『산강재문초』에 실려 있다. 정인보가 편지 내용에서 그동안 격조한 심정을 토로했는데, 변영만의 답장 추정 편지는 그동안의 격조가 위로된다는 표현으로 시작한다. 또 “중간 한 단락의 논의에 이르러서는 깊고도 먼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보잘것 없는 나에게 요청하는 것은 나를 잘못 아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의 高見을 이루는 데에는 진실로 무어 해롭겠습니까? 그러므로 더욱 감탄

星湖 李瀼 선생은 굳세고 총명하며 준수하고 거룩한 자질로써 세상길이 기구한 때를 만나 벼슬을 도모할 뜻을 끊고 아름답게 산림에 은둔하면서, 가난을 옛처럼 달게 여기고 도를 보화처럼 즐기며, 倫常을 돈독히 하고 經籍을 친근히 대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동포들을 마음에 잊지 못하였다. 이에 진실성이 漆室에 쌓이며 저작이 해와 별처럼 빛나게 되었다. 그 학문은 위로는 우주의 원리에 통하고 아래로는 蟲卉와 같은 미물에 미치며 그 가운데에서 인류의 일을 궁구하여 모두 망라해 가져 거두어들이지 않은 바가 없었다.³¹⁾

지도계급을 자처하는 중세적 지식인의 전통을 잇는 태도를 변영만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성호사설』의 서문인데 마치 정인보 편지에 언급한 진정성으로 천하를 운택하게 하자는 말에 대한 응답처럼 유사한 논리가 펼쳐지고 있다. 漆室은 본래는 춘추시대 노나라의邑名이다. 노나라 穆公 때에 임금은 늙고 태자는 어려 국사가 매우 위태로웠는데, 칠실의 소녀가 이를 근심하여 기둥에 기대어 국사와 민중의 삶을 걱정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이야기가 劉向의 『列女傳』에 전하며 국사에 노심초사함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변영만은 고유명사 ‘칠실’을 마치 문자 그대로 킁킁한 골방인 것처럼 사용하여 태양과 별들의 광채와 대조하였고, 그의 학문의 범위를 우주로부터 곤충 식물에 이르기까지 망라한 것으로 표현하여, 깊은 침잠을 통해 터득한 보편적 원리가 모든 학문 대상을 관

하며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至中間一段論議, 夙乎遠矣. 持是也, 以責之於此區區者, 蓋失其擬, 而其於自成一高見, 固何妨? 故尤所欽嘆而無措者, 此也.]”(변영만 저, 『변영만전집』 상, p.366.)라는 구절은 본고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대목에 대한 답변으로 여겨진다. 변영만이 誠을 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문집 곳곳에서 誠을 추구하여 族類(민족)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발견되지만, 정인보의 표현이 자기를 추켜세우자 나는 그런 그릇이 못된다고 사양하는 정도인 듯하다.

31) 변영만, 『변영만전집』 상, 「星湖僊說序」, p.164. 원문은 “星湖李先生, 以剛明俊偉之資, 值世道崎嶇之日, 絕意營仕, 佳遯邱林. 甘貧如飴, 嗜道若貨, 篤倫常而親經籍, 眷宗邦而心儔人. 於是, 誠忱鬱於漆室, 而著作光于日星, 其爲學, 上稽天紀, 下暨蟲卉, 中究人事, 括而有之, 罄無不收.”

통하고 있음을 극적으로 제시하였다. 동포들의 처지에 대한 깊은 공감의 진정성이 기반이 되어 킁킁한 골방에서의 도저한 탐구를 거쳐 보편적 원리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중세적 지식인의 양심적 고뇌의 전개 과정인 것이다.

진정성의 내용과 형식과 목표를 나누어, 이 대목을 다시 살펴보자. 한 세상 함께 하는 사람들과 공감을 통해 얻는다는 진정성의 내용과, 다시 그것을 기반으로 천하를 바로잡고 이롭게 한다는 진정성의 목표에 대해서는 변영만과 정인보가 같은 노선을 취하고 있다. 진정성의 표현 형식에 대해서는 당송고문 수준의 정제미를 추구하느냐, 그것을 뛰어넘어 독창미를 추구하느냐의 노선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견해 차이를 보이는 표현 형식은 한문학의 범주에 있는 것이다. 근대계몽기 이래 한문학을 타자화하는 흐름이 지속되어 왔고, 이들이 논의를 주고받는 식민지시기에는 근대적 국문체가 거의 완성되어가는 시점이었다. 근대 문명의 중심은 국문이 장악하고 있고, 한문학은 문명의 중심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었다. 세상으로부터 얻어서 세상에 되돌려주는 진정성을 세상에서 소외되어가는 한문학을 통해 표현한다는 것은, 내용과 목표가 형식을 잘못 선택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잘못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형식에 집착하여 변영만과 정인보, 조공섭, 김수 등이 논쟁을 주고받는 과정은 더욱 시대착오로 보일 수도 있다. 시대착오가 개입되어 있다면 그 가치는 이미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이 시기의 한문학의 이런 논의는 문학사에서 거의 사각에 놓여 있다가 최근에야 연구의 시선이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근대한문학이라는 대목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정인보와 변영만이 誠을 쌓아 천하에 윤택을 입히자는 주장은 중세 이래의 양심적 지식인의 계보를 잇겠다는 의도이다. 백성들을 근대적 국민으로 재조직하여 제국주의와 대항하자는 계몽담론과는 결을 달리한다. 계몽담론은 계몽지식인이 포함되는 근대적 국민을 형성하자는 것이고, 형성하고픈 근대적 국민을 미리 소환하여 동원하려는 기본 구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정인보에게는 동원되는 국민으로서의 단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내가 서자는 것이 아니라 大衆으로 서자는 것입니다. 孤行이라 和應하는 이가 없으리라 落心하실 일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不安이 남에게 없을 리 없습니다. 본심은 본심이라야 일으킵니다.³²⁾

여기서 대중으로 서자는 말, 민족 구성원들의 입장으로 서자는 말은 지식인이 대중이 되라는 말이 아니다. 그 대중은 군주와 권신에게 아부하여 護身하던 자들이 “시대가 변하여 금일에 미친즉 문득 大衆이라는 外護”를 빌게 된다고 할 때의 대중과 같은 것이고, “참으로 끝없는 轉變”을 보이는 믿을 수 없는 대중과 같은 것이다.³³⁾ 孤行 즉 홀로 가는 대중이란 것은, 자신의 입장으로 대중을 향해 다가가는 지식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식인이 대중의 취향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확보하고 대중을 감응시켜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내면의 핵심을 비도덕에 대한 ‘불안감’으로 채우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인보의 의도는 적든 아예 없든 동호자 혹은 호응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며, 그들과 함께 대중에게 민족에게 다가가 그들을 감화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지, 근대 민족주의가 표방하는 국민으로 재조직하여 동원하자라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내가 들으니, “변설을 명쾌히 함에 함께하는 사람이 모이고, 말을 잘 함에 같은 부류가 호응한다.”라고 하였으니, 변설과 말을 명쾌히 하고 잘하는 것은 ‘문사를 닦아 성(誠)을 세우는 것’을 말함이요, 함께하는 사람과 비슷한 부류가 모이고 호응하는 것은 ‘군중이 깨우쳐짐’을 말하는 것이다. …… 가까이 베풀기로는 친척이나 봉우로부터 시작하여 모두 이에 해당하는 것이요, 반드시 넓은 도성이나 큰 읍의 사이에서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말로써 깨우쳐주는 것만을 가

32) 정인보, 『담원정인보전집』 2, 「역사적 고향과 오인의 일대사」, p.284.

33) 정인보, 『담원정인보전집』 2, 「역사적 고향과 오인의 일대사」, p.283.

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취를 멀리 남기기로는 후대의 자손에 이르는 것 또한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³⁴⁾

변설과 말을 명쾌히 잘 하는 것이 바로 ‘문사를 닦아 진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이쪽에서 문사를 닦아 진실성을 확보하면 저쪽은 자연스레 깨우쳐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산강이 들었다는 말은 『荀子』, 「不苟」편에 나오는 말이다. 이 말의 뒷 부분에 “그러므로 말이 울면 말이 대답하고, 소가 울면 소가 대답하는 것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형세가 그런 것이다[故馬鳴而馬應之, 牛鳴而牛應之, 非知也, 其勢然也.]”라고 이어진다. 잘 울면 同類가 호응한다는 것이다. 이 동류가 호응하는 것을 ‘군중이 깨우쳐지는 것’이라고 했다. 꼭 큰 거리의 많은 사람을 붙들어 두고 깨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군중을 깨우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산강은 자신의 문장에 주의를 기울여 읽어주는 성순영과 같은 부류를 동류로 생각한 것이다. 산강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류를 버리고는 즐거움이 없다고 한 바 있다.³⁵⁾ 동류와 함께 어울리며 글을 지으면 읽어주고, 부르면 화답하는 것을 바랐던 것이다. 그렇게 진실성이 담긴 문장을 지으면 우선 동류들이 깨우쳐지고 차츰 나아가 길가는 사람들에게 퍼지고 더 나아가 후대의 자손에게까지 남는 과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은 동류들이 읽어주고 감동하여 변화되기를 일차적 목적으로 삼은 것인데, 그 글은 골육과 같고 지기가 되는 사람들이 우선 함께 참여하는 한문문장인 것이다.

진정성의 표현 형식에 있어서 변영만과 정인보는 지향을 달리 하였지

34) 변영만, 『변영만전집』 상, 「答成純永一汝書 其三」, p.294. 원문은 “僕聞之曰: “黎其辯, 而同焉者合矣, 善其言, 而類焉者應矣.” 黎善其辯言, ‘修辭立誠’之謂也. 同類者之合應, ‘群之見庸’之謂也. 黎與善, 尸諸躬, 合與應, 來自群, 苟能誠於此, 何彼之不隔矣. 且夫所謂‘庸群’, 近施自親戚朋儔, 皆是已, 非必指廣都大邑之間, 執塗人而告之語言也. 遠跡至後代子孫, 亦是已”

35) 변영만, 『변영만전집』 상, 「原死」, p.90, “捨類無樂”

만, 진정성의 내용과 목표에 있어서 변영만과 정인보는 공히 세상과 공감하여 얻은 진정성으로 다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노선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세상과 함께 하는 진정성의 내용으로 진정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표현 형식은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한문학이었다. 근대한문학의 난점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세상 모두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양심적 중세 지식인의 전범에 따라 동류 지식인들이 교화되고 차차 나아가 세상이 교화되는 구도이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근대 계몽담론이 설정한 동원되는 국민의 단계가 본질적으로 차단된다. 이것은 식민지 현실을 근원적으로 부정하며³⁶⁾ 근대의 전개 과정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수용하고 비판하여 새로운 상상력과 학문의 기반이 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V. 맺음말

근대한문학은 근대계몽기 이래 근대 문명의 중심권에서 소외된 자리에서 전개되었다. 중세적 문자 행위의 관성이 적지 않게 남아서 이 시기 한문지식인의 수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았고, 한시의 경우 오히려 창작 향유층이 증가하기도 하고 문집이 대량으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아무리 현상적으로 숫자가 많더라도 소외되고 소멸되어가는 문자 형식을 추구하는 것은 제한적 가치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 그리하여 근대한문학은 국학 연구의 범위에서도 상당히 오랜동안 사각에 방치되어 있었다. 근대한문학의 쌍벽을 이루는 변영만과 정인보는 소외 과정을 분명히 체감하고 있었으며, 거기에 따른 한문지식인으로서의 강렬한 연대의식을 갖고 있었다. 소멸을 예감하면서도 소멸을 되돌릴 만한 가치를 추구했는데, 그것은 眞 혹은 誠으로 표현되는 진정성이었다. 그

36) 한영규, 「변영만의 근대문명 비판」, 『대동문화연구』 55,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p.292.

진정성은 공동체의 삶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며, 다시 공동체의 삶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 공동체의 주된 단위는 민족이라고 하겠는데, 공동체로부터 얻어진 진정성을 다시 공동체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한문을 표현 수단으로 선택한 것은, 직접적 계몽 대상을 공동체 전체로 놓고 있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그것은 성호 이익과 같은 중세 양심적 지식인의 전통처럼 자기 주변 사람들을 계몽하고 그것을 통한 혜택이 천하만민과 대대후손에게 펼쳐지는 구도를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직접적 계몽 대상을 공동체 전체로 상정하면서, 약육강식의 급박한 시대적 상황을 국민 동원의 과제로 대응한 근대 계몽담론과는 결을 달리하는 것이다. 지식인 개인의 진정성을 먼저 확보하고 지식인 사회에 파급하여 변화를 추동하여,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계몽담론이 국민이라는 층위에 지식인과 백성을 모두 투영하였다면, 정인보와 변영만은 지식인과 공동체를 각기 다른 층위로 인식했던 것이다. 지식인의 별도 설정은 중세적 귀족주의의 잔영이기도 하지만, 이 시기의 의미는 따로 있는데 동원되는 국민의 단계가 본질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이다.

동원되는 국민으로서 국민적 교양을 추구한다면, 전통 한문 지식은 오히려 난삽함과 난해함으로 폐기해야 할 대상이 된다. 문집을 모두 모아 불살라야 한다는 신채호의 과격한 주장이나, 이광수의 전통에 대한 철저한 부정까지 국민 동원의 목적 하에 전개된 극단적 주장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정인보와 변영만 등은 공동체의 고통스러운 삶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노선을 선택한 것이다. 골육 혹은 지기로 표현되는 한문지식인 내부의 변화를 추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 지식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 연암 박지원 등 대한 각별한 관심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저 1930년대의 실학 혹은 조선학의 융성은, 한편으로 국학 고전에 대한 근대한문학계의 에너지가 일정한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한동안 근대한문학의 시대착오적 속성으로 인식되었던 것은, 식민지시대 새로운 학문을

개척했던 에너지로 재해석될 수 있으며, 지금 여기의 상상력을 보완하는 자료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參考 文獻>

- 黃玹 著·임형택 외 옮김, 『譯註 梅泉野錄』, 문학과지성사, 2005.
- 변영만 著·실시학과고전문학연구회 역주, 『변영만전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 이가원 편, 『한문신강』, 신구문화사, 1972.
- 정인보, 『담원 정인보 전집』,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 김진균, 「변영만의 문장관과 문예의식」, 『민족문학사연구』 23, 민족문학사연구소, 2003.
- , 「한학과 한국한문학의 사이, 근대한문학」, 『국제어문』 51, 국제어문학회, 2011.
- 박금규, 「효당 김문옥의 생애와 시」, 『한문교육연구』 11, 한국한문교육학회, 1997.
- 박우훈, 「현산 이현규의 생애와 교유」, 『인문학연구』 30권2호,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3.
- 이희목, 「근대계몽기 한시 소고」, 『인문과학』 45,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 임형택, 「변영만의 글쓰기 형식과 문학 사상」, 『대동문화연구』 55,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 정길수, 「일제강점기 전통 지식인의 고뇌」, 『인문학연구』 40,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2010.
- 한영규, 「변영만의 근대문명 비판」, 『대동문화연구』 55,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미디어한국학 <http://www.mkstudy.com>

Abstract

An Essay on the Sincerity of Chinese-letter Literature in Modern Times

*/ Kim Jin Kyun**

The Chinese-letter classical literature in modern times developed outside of the central sphere of modern civilization after the modern enlightenment period. Those intellectuals who pursued the hitherto neglected Chinese-letter classical literature called themselves “flesh and bones (骨肉),” meaning “one’s whole body” or “one’s dear family members,” each other and promoted a strong sense of solidarity. At the heart of the modern Chinese-language literature were such figures as Jeong Il-bo (鄭寅普) and Byeon Young-man (卞榮晚) who shared a sense of solidarity and discovered the value of modern Chinese-letter literature. As they attempted to prevent the literary form from being extinguished, they found a new value in it: sincerity. From their perspective, sincerity is found in a sympathy with life in a community and deserves the credit of the most cherished value in the process of changing life in a community. Even though Chinese-letter literature was being neglected and extinct in society, literary figures could express their sincerity in the literary form. As intellectuals devoted to the Chinese character classics, they were fully determined to transform themselves and asked themselves to help promote the intellectual community devoted to Chinese-language classical literature, which was possible due to a strong sense of solidarity among themselves. Their approaches differentiated themselves from those of the enlightenment discourses in modern times that imposed duties on the public as they imposed duties on themselves instead. Unlike the modern

* Research fellow, SKKU / bujiwibuji@hanmail.net

enlightenment discourses that neglected knowledge on Chinese letter classics, they could get access to knowledge of traditional Chinese-text literature from a new perspective.

【Key words】 Byeon Young-man, Jeong In-bo, modern Chinese-letter classical literature, sincerity

투고일 : 5월 10일, 심사일 : 6월 13일, 게재확정일 : 6월 14일